

Leave No One Behind!

- **이름:** 임완주
- **근무기구 및 부서:** 유엔 난민기구 말라위 사무소 UNHCR Malawi, 보호팀 Protection Unit
- **직위/직급:** Associate Protection Officer (P2)
- **지원 경로:**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주관 2019 년 UNV 전문봉사단 합격
- **근무 기간:** 2019 년 7 월 8 일~ 현재

1. 난민? 아프리카 말라위?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나는 어릴 적부터 무작정 유엔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학부 공부를 하면서도 유엔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는 알지 못했다. 그렇게 학부시절을 보내다 3 학년때, 한창 유럽난민사태가 터졌을 무렵 학교에서 난민학 수업을 듣게 되었다. 수업 내용도 흥미진진했지만, 담당교수님께서 베트남에서 호주로 배타고 피난오신 “보트 피플 (Boat people)” 중 한 분이셨다. 교수님을 통하여 난민은 누구인지, 그리고 난민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학부를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에 있는 난민 NGO 에서 인턴ships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난민 NGO 에서 인턴ships을 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은 물론이고 모든 지인들이 물어본 첫 질문은 “한국에도 난민이 있어?” 였다. 그때만 해도 난민이란 존재는 유럽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었다. 그랬기에 모두 다 ‘난민’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인턴ships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난민들은 만나고, 그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온 난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본국에서 박해를 피하여 어찌다 보니 한국에 정착하게 된 분들이었다. 그렇게 나는 어느새 난민분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상하게도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턴ships을

기반으로 대학원 논문도 난민아동과 무국적아동에 대하여 쓰게 되었다.

학부 이후에 모든 경험들이 난민과 관련되다 보니 유엔난민기구에서 일하게 되는 꿈도 자연스레 갖게 되었다. 처음 유엔봉사단원 공고에 지원할 때까지 나는 말라위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다는 것을 제외하곤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사실 아프리카에 가게 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지원을 했고, 인터뷰 이메일을 받을 때까지 내가 지원한 것 또한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 인터뷰 대상이라는 메일을 받고 너무 깜짝 놀라 그제서야 말라위에 대하여, 그리고 유엔난민기구 말라위 사무소에 관하여 황급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인터뷰는 기본적인 유엔난민기구의 멘데이트 그리고 나의 전반적인 경력에 관하여 진행되었고, 몇 주가 지난 후에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2. 깊고 깊은 필드

처음 유엔봉사단을 지원하면서 사실 말라위가 지망 1 순위는 아니었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너무 멀기도 했고 아프리카라는 미지의 세계같은 이미지가 강하여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필드에서의 경험은 무척이나 값진 경험인 것 같다.

먼저 말라위 유엔난민기구는 잘레카난민캠프(Dzaleka Refugee Camp)를 중심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캠프는 말라위의 수도 릴롱궤에서 45 분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1994 년 르완다 대학살에 대응하여 1 만명의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잘레카 캠프에는 현재 그 숫자의 5 배에 가까운 약 4 만 7 천명의 (2020 년 10 월 기준)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그리고 브룬디 난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잘레카 캠프의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한 혼잡함은 유엔난민기구의 가장 큰 숙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수 많은 안전과 생업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말라위 사무소는 국가사무소와 현장사무소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매일 아침 릴롱궤 사무실에서 잘레카 캠프로 가는 회사 버스를 타고 캠프로 출근을 한다.

아직도 처음 캠프를 갔을 때 그 생생함은 잊을 수가 없다. 흔히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텐트로 만들어진 캠프는 아니었고,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들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내가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꿈꿔온 현장의 모습이었다. 유엔난민기구 사무실 앞에 줄서 기다리던 난민들의 눈은 일제히 나를 향하였고, 처음 보는 동양인의 모습에 한동안 그들은 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필드에서의 삶은 당연히 내가 살아 온 삶과는 180도 다른 모습의 삶이었다. 사실 업무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처음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 밖으로 나와 캠프 안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은 무서웠다. 눈에 띄는 동양인에게 모두 다 관심을 보였고, 아이들은 내가 가는 곳 마다 졸졸 따라다녔다. 심지어 내가 회사 버스에서 내리는데 아이들이 환호를 보내고 내 팔과 머리를 만지는 등 예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여 ‘내가 연예인인가?’ 라는 착각을 들게끔 했을 정도다. 또한 매년 캠프에서 점심을 먹고 나면 나는 늘 배탈에 시달려 한국에서 가져온 정로환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 이제는 적응이 되어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만 처음에는 이 모든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워 혼란스럽기도 했다.

3. 진정한 보호를 위하여

난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늘 ‘진정한 보호’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수많은 난민들이 전쟁과 박해를 피하여 타국으로 떠나기를 결정한다. 자신의 국가가 자신들을 더 이상 보호해줄 수 없기에 제3국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난민들은 제3국의 보호를 받으며 비호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난민인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각 국가마다 모든 인정절차는 다르지만 그 절차가 힘들고 난민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동일 할 것이다. 전쟁이나 박해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난민들에게는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인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비단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인정절차를 다 마치고 비호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과연 그들의 상황은 좀 나아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말라위에서 난민 인정을 받고 합법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삶이 고통스럽고, 빛이 없는 어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난민들이 진정한 보호를 받으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저 거주 자격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누리고 살아가는 교육, 노동, 의료 등 기본적 권리를 누리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보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된다.

내가 일하고 있는 보호팀은 난민들이 캠프 내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캠프 내에서 유엔난민기구의 보호전략은 방지와 대응으로 나뉘어 진다. 이는 캠프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보호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물론, 난민들, 특히나 아동과 여성 그리고 사회적 취약 계층들이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받고 그들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현재 나는 아동보호팀과 젠더기반폭력대응팀에서 사례 관리와 프로젝트 진행을 맡고 있다. 캠프 내에서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행, 협박 등 흔히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안전과 관련된 사건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기에 몇 만명의 난민들의 사례관리하는 것은 그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유엔난민기구의 주 업무 중 하나이다.

잘레카캠프 밖에서 거주, 노동 그리고 교육 등은 말라위 정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대다수의 난민들은 캠프 내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만 한다. 설사 캠프 밖에서의 생활이 허락된다고 하여도 말라위 또한 아프리카에서 제일 빈곤한 국가 중 하나이기에 사실상 캠프 밖 생활도 녹록치 않은 건 마찬가지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아동과 여성들이 여러 가지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고 취약하다는 것이다. 캠프 내 아동인구의 절반은 초등교육의 기회조차 없어 자연스레 돈을 벌기 위하여 일찌감치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만, 일자리조차도 부족하여 수많은 여성들은 청소년 시기부터 성매매에 노출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기출산과 성병 등은 어느새 캠프 안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특히나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아프리카 사회에서 피임은 굉장히 아직까지 낯설고 타부(taboo)시 되기에 많은

어린 여성들이 오랜 기간동안 성매매에 노출되면서 반복적인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다. 또한 성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거나 우리 같은 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와 비정부기관들은 청소년 상담 센터 등을 통하여 매달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보호와 젠더기반폭력대응팀 담당자로서 올해는 굉장히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된 시기에 제네바에 있는 유엔난민기구 본부로부터 앞에서 얘기한 문제들에 대응하고 방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 받은 것이다. 프로젝트의 처음 목적은 캠프 내 난민청소년들이 더 활발하게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조직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본부에서 제안한 펀딩의 금액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적어 우리는 이에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여러 회의 등을 통하여 우리는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여성들 또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무소의 젠더기반폭력대응 팀으로부터 펀딩을 더 얻어 낼 수 있었다. 본부와 지역사무소를 설득하기 위하여 나는 청소년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 기획안을 작성하였고, 이에 본부와 지역사무소는 흔쾌히 처음 펀딩 금액의 두배를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프로젝트 펀딩은 많은 난민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국에 라디오 기계 등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를 통하여 캠프 안에서만 들을 수 있던 라디오가 말라위 전지역으로 방송 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성 직원이 대부분이었던 라디오 방송국에 여성 사회자와 직원들을 더 고용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지지하기 위하여 돼지와 토끼 사육으로 캠프 및 지역사회 미혼모들을 돕는 청소년그룹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기대한 것은 캠프 내에서 제한된 생활을 하는 난민들, 특히나 청소년과 여성들이 캠프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그들이 마주하는 문제들을 직접 고민하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었다. 우리의 기대에 난민청소년들과 여성들은 부흥해 주었고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피드백 또한 받을 수 있었다.

때로는 난민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전쟁과 박해를 겪은 사람들이기에 대부분의 난민들은 트라우마를 꺼안고 살아 간다. 그렇기에 작은 문제 하나에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반응할 때도 있고 가끔은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다. 늘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이 겪은 일들을 나는 겪어보지 않았기에 100% 이해하기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들과 함께 계속 일할 수 있고, 일하게 되는 이유는 난민들은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또한 작은 지원으로도 큰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이 언제 캠프를 떠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본국으로 돌아가던지 아니면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으로 재정착을 갈수 있지만 이 또한 생각보다 기회가 쉽게 오지 않기에 희망이 없는 편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기 간절히 원하고 있다. 박해와 가난으로부터 멀어져 자신들의 가족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간절히 바라고 있다. 캠프 내 모든 난민에게 그런 삶을 내가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캠프 내에서 조금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진정한 보호를 받으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당장은 변화가 없어 보여도 몇 달, 몇 년이 지난 뒤에 돌아보면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난민들을 위하여 일하려고 한다.

4. 끝내는 말

이 글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을 적어야 하나 고민이 정말 많았다. 허나 적다 보니 지난 말라위에서의 1년 6개월이 스쳐 지나가며 다 적을 수 없는 마음에 괜히 아쉬워졌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취약 계층 중에서도 제일 먼저 배제되는 그룹이 난민처럼 본국에서도 비호국에서도 환영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언제까지 내가 유엔 그리고 난민들과 함께 일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오래 난민들을 위하여 일하고 싶다. 난민들의 삶은 모두 자신의 나라를 떠나왔다는 사실 외에 모두 다른 이야기, 다른 삶 그리고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에 더 많은 나라의 난민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 또한 나와 비슷한 삶을 꿈꾸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좋은 기회에 꼭 도전하고 이 값진 경험을 꼭 직접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비록 쉽지 않은 지난 1년 6개월이었지만, 이 시간 동안 유엔봉사단원으로 어려운 일 없이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외교부(유엔과) 관계자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나를 믿고 열심히 함께해준 동료들, 그리고 난민들에게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다. 앞으로도 난민들이 각자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나도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끝/